

# 광주시 향후 3년 복지비 부담율 전국 최고

총 예산의 39% 차지 … 2017년엔 1조4000억으로

전남은 농수산·해양 20% 최고 … 복지부담은 낮아

안행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열악한 지방재정 터에 '정부 재정 의존도'가 심각한 상황에서 향후 3년간 광주시의 복지분야 예산 부담율이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과파한 살림살이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안행행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안행부가 수립한다.

전교조 출신 시교육감 후보들

첫 회동 … 경선 방식 논의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광주시교육감 후보 3명이 18일 첫 회동을 가졌다.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 방식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2014 광주시 민주진보교육감 추대위원회'는 18일 오후 광주YMCA에서 전교조 출신 후보인 장희국 현 교육감, 윤봉근 예비후보, 정희곤 광주시의원 등 3명을 초대해 상견례를 통해 단일화 기본원칙, 경선을 등을 협의했다. 추대위는 전날 광주시민단체협의회(시민협)가 요구한 추대위+3자 회동, 공정한 경선 관리 등을 수용하면서 후보간 3자 회동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추대위는 조직도 정비했다. 이철우 목사 단독 대표 체제에서 김정길 6·15선언 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최영태 광주시민협 상임대표 등을 추가해 3인 상임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집행위원장은 정영일 전 광주시민협 상임대표가 맡기로 했다.

/박정우기자 jwpark@kwangju.co.kr

'임을위한'… 5·18기념 광주 시·도의장 협력, 결의안 채택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최진호 전북도의회 의장)는 18일 대전시의회에서 올해 제2차 임시회를 열고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광주민주운동 공식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민주화운동의 송고한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하고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유통되며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주장을 달았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18일 오전 광주시장 5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에서 FISU의 제안(역도 평양 개최, 성화 북한 봉송)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체육계에서는 북한이 지난해 9월 '아시안컵 및 아시아 클럽 역도선수권 대회'를 개최한 점을 들어 U대회 역도 종목 개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내년 7월 광주에서 열리는 U

이 계획안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지방정부 세입은 2013년 232조7000억원에서 2017년 252조2000억원으로 증가하고, 연평균 세입 증가율은 2.2%로 국가 세입 증가율(5.0%)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같은 기간 광주는 3조6694억원에서 4조4044억원으로 연평균 세입 증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4.7%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6조1929억원에서 7조693억원으로 연평균 3.4%씩 신장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 등 전국 지방정부의 자체 재원 비중은 2013년 34.4%에서 2017

년 33.9%로 낮아진 반면 중앙정부가 주는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비중은 47.5%에서 50.9%로 높아져 중앙의존도가 심화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세출(일반·특별회계)을 분야별로 보면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지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방재정의 사회복지(보건 제외) 분야 배분액은 2013년 60조7000억원에서 2017년 71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4.2%씩 늘리는 것으로 잡았다. 이 기간 지방정부 세출 중 사회복지 비중은 26.1%에서 28.4%로 높아진다.

특히 광주의 복지분야 비중은 전국 자치 단체 중 가장 높은 39.0%로 예측됐다. 실제 2013년 1조1966억원이던 광주시의 사회복지 예산은 2017년 1조3948억원으로 1982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시는 또 이 기간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에 따른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올해에만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로 국비 52억, 시비 21억 등 73억원이 들어가며, 2015년 434억원, 2016년 936억원, 2017년 1765억원 등이 투입된다.

전남은 농림·해양·수산 분야 비중이 19.9%로 전국서 가장 높은 반면 사회복지 분야는 21.4%로 세종시를 제외하고 경북(21.0%)에 이어 가장 낮았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013년 1조1193억원에서 2017년 1조3028억원으로 연평균 3.9%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한승원 칼럼

그곳에는 아무 배도 다니지 않고 돈만 허비했다.

그 시장이 몇천 억 원 들여 만든 한강의 새빛동등심이라는 것도 물길만 막는 무용지물이다. 토목공사 사장 출신인 지난 대통령은 전국의 모든 강을 운하로 만들겠다는 농모가 있는데, 농사철에는 신촌 저수지에서 흘러온 물줄기가 속보로 걷는 나하고 경쟁하듯이 달린다.

자기의 일기 안에 끌려려고 서두른 나머지 부실공사가 되었고, 전국의 강에 만든 보를 관리하는 돈만 해마다 몇 백 억 원씩이 들어간다. 자전거 길도 전국 도처에 혼돈을 들여 부실하게 만들었다.

영산강 운하를 위해 두 개의 보를 설치했는데, 승촌보에 가보았더니 파랗게 썩어 있었다. 그 대통령은 실속없는 일임에 틀림없는 4대강 사업을 위하여 복지 예산들을 쓸이고 또 쓸었다.

지자체의 장과 지자체 위원들을 뽑아 운영하는 현행 제도는 끝까지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장들은

## 국민의 혈세 낭비에 대하여

하고 물자, "노후 되어서 그래요."라고 했다. "어느 회사에서 공사를 한대요?" 꼬치꼬치 묻는 나를 그는 불편해 했다. 나는 "빌어먹을, 아무렇지도 않은 농수로를… 쪽쪽 친 것들…" 하고 속으로 투덜거리며 바다 쪽으로 걸었다.

저것은 몇십 억짜리 사업일까. 농수로 관리하는 공사에서는 왜 저 멀쩡한 것을 걷어내고 새로이 까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에 대하여 알 만한 사람에게 왜 저러느냐고 물었더니, "남은 예산을 써버리려고 그런답니다. 그 예산은 안 쓰고 다음해로 이월하면 앞으로는 그것을 다시 가져올 수가 없게 됩니다."

어느 지자체의 장은 그 지자체에 어울리지 않게 새 청사를 너무 크고 호화롭게 지은 나머지 시의 재정이 부도남지경이 되었다는 기사가 세상을 시끄럽게 한 적이 있다. 무상급식 반대하다가 스스로 낙마한 서울시장은 한강 옆구리 산과 벌판을 절개하여 뱃길을 냈는데,

〈소설가〉



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의사협회-보건복지부 차밀실험의 규탄·의료민영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北, 광주U대회 평양 역도경기·성화봉송 수용

강시장 "정부 수락땐 5월 FISU집행위서 확정"

북한이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측이 제안한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이하 광주U대회) 성화 북한 봉송과 역도 종목 평양 개최 수용 의사를 밝혔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18일 오전 광주시장 5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에서 FISU의 제안(역도 평양 개최, 성화 북한 봉송)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체육계에서는 북한이 지난해 9월 '아시안컵 및 아시아 클럽 역도선수권 대회'를 개최한 점을 들어 U대회 역도 종목 개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내년 7월 광주에서 열리는 U

대회 종목은 총 21개인데, FISU에서 이번 대회에 빠져있는 역도 종목을 추가해 평양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성사된다면 큰 틀에서 선 남북 공동 개최가 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에서 승인해 주면 오는 5월 벨기에 부르셀에서 열리는 FISU집행위원회를 통해 이를 확정한다는 게 FISU의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체육계에서는 북한이 지난해 9월 '아시안컵 및 아시아 클럽 역도선수권 대회'를 개최한 점을 들어 U대회 역도 종목 개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당시 역도 대회에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여해 분단 후 최초로 북한에서 태극기 계양과 애국가 연주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 체육계 관계자는 개인의견을 전제로 "북한 역도 대회 당시 세계역도 연맹에서 북한에 광주U대회 역도종목 부활과 함께 평양 개최를 제안했다는 말이 떠돌았다"면서 "북한도 국제대회인 U대회의 역도 종목 개최와 성화 봉송을 하면 국제 이미지 개선, 관광객 유치 등 얻는 게 많아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北, 광주U대회 평양 역도경기·성화봉송 수용"

강시장 "정부 수락땐 5월 FISU집행위서 확정"

수익성상가 매매전문

수완지구상가매매

- 한도빌딩(대법5자이파트 후문 비로앞) 1층7가매매 18평(보전월130만 원/5천매기 4억 ▶ 3억 5천/할인가)

- 한솔빌딩 3층내내 모아PT입구 1층 3가 매기 45평(보전월 24평 2억 5천 매기 4억 ▶ 3억 4천/할인가)

- 엘스타빌딩 뒷대란 대로변3층 상가 매기 62평(보전월 180만 원/5천)

매 3억 2억 5천/할인가)

서구 쌍촌동 복사매매

(원룸형 오피스텔)

- 원룸형 빌라(11평) 보200

월 27만 매기 4500 ▶ 3800만 원/할인가)

- 원룸형 빌라(12평) 보200

월 28만 매기 4500 ▶ 3900만 원/할인가)

- 투룸형 빌라(14평) 보300

월 40만 매기 5500만 ▶ 4800만 원/할인가)

수완상가임대

- 1층임대 18평 보전월 1월130

- 3층임대 45평 보전월 110

- 3층임대 20평 보1천 월 60

- 3층임대 62평 보전월 150

010-6670-9800

062)952-5984

010-6832-9700

010-2676-7037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김정가이하

▶ 금당 광주은행본점 부근 대인동 대로변 649㎡(210)

건물 522㎡(158)공시지가 11억6천 매도 11억

▶ 자하철 4거리 대로변 준주거 377㎡(111) 병.의원, 사옥, 학원, 자동차정비시설 등 적합 7억 천

▶ 동평동 대지 318㎡(96) 건평 228㎡(76) 상가, 주택, 원룸 등 18개 전세 1억2천선에 월500만 원 9억6천

▶ 전남대 입주인원 24평 4거리 상업지 대지 446㎡(136) 4층건물 322평 은평 3매도 7억 2천

▶ 동구 대지 542㎡(164) 건물 3968㎡(1200) 18억 2천

▶ 동구 예식장 대지 1924㎡(582) 건물 3287㎡(994)

▶ 영광병원등도 적합 김정 47억3천 원 27억3천

▶ 남구청 부근 대로변 병원, 요양시설등 적합 대지 1461㎡(44216) 건물 3656㎡(1015) 매도 36억3천

▶ 서구 치평동 대로변 1020㎡(340) 매도 35억 원

▶ 서구 치평동 대로변 1020㎡